내가 사는 풍경

십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이곳은 근처에 초안산과 우이천이 있는 평범한 주택가 동네다. 내가 이 동네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가로수나 풀, 꽃과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연이다. 그것들은 집주변이나 길거리 어디에나 있기는 하지만 너무 흔해서 그런 것인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존재감은 미약하다. 그런데 매일 오고 가던 길에서 문득 바라 본 하늘이나 풀꽃 하나가 나의 시선을 끌어 당긴다. 해가 막 지고 있을 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이동할 때와 같이 자연이 변화할 때의 풍경은 경이롭다. 그리고 그런 풍경 속에는 왠지 모를 아련함이 있다. 이 동네에 살면서 그동안 이곳에서 내가 바라본 풍경을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잎이 지고,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될 때까지 내 삶의 풍경이 될 풍경 앞에 잠시 멈춰 서서 풍경을 본다. -이정희

2019. 9. 16 - 9. 20

플랫폼 팜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39

instagram@platform_pampa

이 정 희

그늘 밑 죽음 60.6x72.7cm oil on canvas 2019